

회원사소식

삼성전자

미 HP사와 워크스테이션 공동개발추진

삼성전자(代表:姜晋求)는 세계 굴지의 컴퓨터업체인 휴렛팩커드(HP)사와 기술 제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WS: WORKSTATION)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HP社와 워크스테이션의 공동개발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HP社의 기반 기술을 이전받아, 반도체 CHIP-SET을 포함한 핵심기술을 공동개발하여 고성능, 저가형의 워크스테이션을 개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HP社가 공동개발할 워크스테이션은 첨단기술인 RISC(단축, 명령 체계 방식: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TYPE으로, 대형급 이상의 초고속처리 기능, 고성능의 그래픽 기능 등을 보유하여 일반업무용은 물론 과학기술, CAD/CAM, 컴퓨터 그래픽스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터이다.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은 중앙연산처리장치(CPU)가 RISC, 68000 계열, INTEL등으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가 HP社와 공동개발키로 한 WORKSTATION은 급신장이 예상되는 고성능 저가형인 RISC를 기본으로 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워크스테이션 개발후 국내 판매는 물론 삼성의 자가 브랜드로 수출하고 HP社에 OEM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HP社가 워크스테이션 사업에서 제휴하게 된 것은 HP社측이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 생산력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종의 대리점 공급단계에 있는 국내 워크스테이션 기술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과 연산처리 반도체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진일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데이타시스템

삼성정보기술교육센터(SITEC) 설립

삼성데이타시스템(주)(代表:林慶春)은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첨단정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정보기술교육센터(SITEC; SAMSUNG INFORMATION TECHNOLOGY & EDUCATION CENTER)를 설립, 지난달 4일 개관식을 가졌다.



동사는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으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개발 인력을 위한 보수 교육으로 기술력 배양, 그리고 교육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로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더욱 앞당기고 우수한 S/W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컴퓨터 교육센터인 SITEC을 설립하게 되었다.

총 면적 310평에 대 강의실을 포함한 6개의 강의실로써 총 200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갖춘 SITEC은 교육생들의 충분한

실습을 위하여 SPC 3000과 4000 및 IBM5540, PS-2 등 각종 장비들을 1인 1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완벽한 실습중심의 교육을 진행토록 했으며 연내 대형 컴퓨터인 IBM 4381, 9370과 COMPUTER PROJECTOR 외에도 20여종의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할 계획이다.

동 교육센터의 위치는 을지로 2가 삼성빌딩 2층.

쌍용컴퓨터

동아대에 LAN공급

쌍용컴퓨터(代表:崔丙恒)는 최근 부산 동아대와 LAN(근거리통신망) 구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쌍용컴퓨터는 미국의 LAN 전문업체인 웅거만 바스사와 기술 제휴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LAN시스템인 NET/ONE과 자사가 개발한 PCNIU(Network interface Unit)와 Net-Tranecolver를 이용하여 동 대학의 LAN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동아대의 LAN구축은 대학본부와 각 학과사무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 학사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작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경우 2단계로 모든 교수연구실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쌍용컴퓨터는 8월말까지 광케이블 공사를, 9월말까지는 장비설치 및 관련 S/W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이러한 일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면 동아대는 국내 대학들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LAN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쌍용컴퓨터는 자사가 개발하여 신용금고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SAMS(신용금고 종합관리 시스템)를 최근 안양의 대양상호신용금고와 천안의 제일상호신용금고에 공급키로 하는 등 금년들어 이 시스템의 공급 목표시장을 지방 금고사로 전환한 이래 꾸준한 판매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우증권

대우증권 PC통신 시스템(DIAL-VAN) 본격가동

대우증권은 일반전화망을 통해 퍼스컴과 퍼스컴,

퍼스컴과 호스트컴퓨터를 연결, 집안에 앉아서 정보를 자유로이 교환할수 있는 PC통신 시스템을 8월16일부터 가동했다.

DIAL-VAN으로 불리워진 이 시스템은 총 170여개 화면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식시황정보, 뉴스기사, 그래프정보, 전일체결정보 등 72개 화면을 개발하였으며, 2차적으로 년내에 100여 화면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대우증권의 DIAL-VAN은 몇몇 대형증권사가 현재 가동중인 가정 정보조회시스템(HTS)기능에 전자우편(E-MAIL)도 추가한 것으로 고객과 대우증권과는 물론 고객과 고객간에도 통신이 가능하게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타사가 특정단말기만 사용하는데 비하여 9인치 단말기, TV게임기, 각종 PC등 이용장비를 다양화시켰을뿐만 아니라 기술축적으로만 가능한 포켓용 조회기도 머지않아 선보일 예정이다.

DIAL-VAN의 개발로 일선영업점에 조회 문의전화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한 투자클럽 활성화, 모의 주식투자경연대회 실시,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신속한 정보의 교환도 가능해져 주식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통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판

중학교 1, 2, 3, 학년용 국어, 영어, 수학 프로그램



대우통신 (대표 : 박성규)은 최근 자사 생산 교육용 16비트 PC인 프로-엘리트용 교육용 소프트웨어 3종을 개발 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중학교 1, 2, 3학년용 국어, 영어, 수학으로써 한 학기당 한과목에 2장의 디스켓 (3.5인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할수 있는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 심화, 종합문제를 난이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직접 요점 정리란에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학습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최근 교육용 PC 규격 표준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래픽 처리방법에 있어서 프로-엘리트는 상위 규격인 CGA 및 허클레스 겸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 사용자들이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택,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대우통신은 현재 프로-엘리트용으로 한글 / 한자 워드 프로세서, 각종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상업 고등학교 전자계산 일반,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등 교육용 컴퓨터로서는 국내 최다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민학교 4, 5, 6 학년용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소프트웨어도 곧 개발을 완료하고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데이터통신 (주)

9월 1일부터 PC-VAN 시험운영

최근 PC이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울러 PC를 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가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의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화, 요금의 인하 등 요구사항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데이콤에서는 PC-VAN의 시험서비스를 개시 기존의 한글 전자 사서함 가입자 (약1200)을 PC-VAN으로 이전하고, 신규 한글 전자 사서함 가입자를 PC-VAN으로 유도 '90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우기 '90년 중반

부터는 DACOM·MAIL400, BBC등 타기관의 PC-VAN과도 연동시켜 나갈 계획이다.

PC-VAN이란 DACOM-NET와 KTA의 공중 전화망을 이용한 PC-TO-HOST형의 통신 지향형 서비스로서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전송, 정보검색, 전자적 거래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PC-VAN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대별하여 통신 서비스, 정보검색 서비스, 전자적 거래 처리 및 기타 부대 서비스로 나눈다.

콤텍시스템

다이얼 업 모뎀시판

(주)콤텍시스템 (대표 : 南錫祐)에서는 사업확대의 일환으로 수출 지향적으로 판매되어 왔던 DIAL-UP MODEM을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급형 DIAL-UP MODEM의 시판을 개시했다.

콤텍시스템이 그동안 심체되어 왔던 DIAL-UP MODEM 시장의 활성화방안중의 하나로 연구개발에 전력,추진한 결과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보급형 내장형 1200BPS MODEM (모델명 X-TAL 12PC) 과 보급형 외장형 1200BPS (모델명 X-TAL 12DS), 고급형 2400BPS (X-TAL24D)를 개발, 이미 체신부 형식승인을 필요하였으며 저가격으로 판매,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확장에 따라 전국 대리점 모집을 병행하여 전국 네트워크망을 강화,종합 네트워크 시스템 전문업체의 선두주자로서 정보통신의 일익을 담당할 방침이다.

DIAL-UP MODEM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전자계시판 설치에 유용하게 사용될뿐만 아니라 현재 전용선 모뎀처럼 항상 고정된 라인이 설정되어 비싼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값이 싼 전화 사용료만 낸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보급형 DIAL-UP MODEM을 판매하므로써 (주)콤텍시스템에서는 대형 네트워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소형 네트워크망까지 각 사용자의 실정에 맞는 유효적절한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서 및 기술정보관리시스템” 개발

산학협동에 의한 도서 및 기술정보관리 소프트웨어가 개발돼 이의 폭넓은 활용이 기대된다. 금성소프트웨어(대표:황칠봉)는 지난 2월 포항공대와 공동개발에 착수한 “도서 및 기술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소프트웨어는 DPS 6, VAX, IBM, UNIX 기종등 다양한 중, 대형컴퓨터에서 활용가능한 것인데, 이의 개발로 국내도서관 자동화 및 기업체의 기술정보관리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금성 소프트웨어와 포항공대가 공동개발에 성공한 도서관리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도서관리 서비스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즉 카드없이 도서목록 작성이 가

능하고, 터미널을 이용하여 구내 어느 사무실에서나 도서현황 파악이 용이하며 각 분야의 서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ON-LINE)목록 시스템과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대출자동화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CD-ROM을 사용하여 외국 서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작업이 필요없어 작업이 용이할 뿐 아니라 MENU DRIVEN 방식을 채택 조작이 간편하며, 타이틀별, 저자별, 출판사별 등 다양한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번 개발된 기술정보관리 소프트웨어는 국내 표준서지 양식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며 국내 도서시스템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망 및 서지데이터를 이용한 부가가치 통신망(VAN) 구축으로 도서기술정보관리 전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후기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을 뿐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는 않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혹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며 입장 또한 다르다.

단적으로 말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틀리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정보의 전달이 주로 소문에 의해서 개인과 개인간에 이루어졌다. 그러던것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를 맞이했고 이는 정보의 일방적 대중전달로 지식의 확산과 더불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처럼 정보가 왜곡되는 폐단도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제3시대를 맞고 있다. 대량의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쌍방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기는 정보화시대에 있어 정보의 교류가 일부 계층간에만 이루어져 계층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성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첨단 과학과 기계문명에 밀려 인간 그 자체가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호는 참 바쁘게 만들었다. 더 솔직히 말해서 뭐가된지 잘 모르는 가운데 만들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편집을 새로 맡고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앞선다. 진실한 대화속에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정보화 사회”를 만들고 싶다.